19世紀 '甕器 敎友村'의 信仰生活과 甕器 紋樣

김혜숙
떡박물관 학예연구사

1. 머리말
2. 옹기 교우촌의 신앙생활
3. 천주교 신앙이 옹기 문양에 끼친 영향
4. 맺음말

1. 머리말

한국의 천주교는 종교의 수용과 함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모진 박해를 받았다. 이때부터 신자들의 목숨을 건 '신앙 지키기'가 시작되었다. 그 시작은 '교우촌'(敎友村)과 함께 하였다.[1] 교우촌은 처형과 박해로 점

1) 한국의 촌락은 血緣에 의한 同族村, 地緣에 의한 촌락 및 近隣組織에 의한 各姓村, 信仰의 원리에 의한 宗敎聚落이 있다. 종교 취락들 중 儒敎的 신념에 입각한 同族村(종교 취락으로 구분되기 보다는 일반 촌락으로 인식됨), 佛敎에 의해서 형성된 寺院村, 프로테스탄트에 의해 형성된 信仰村, 類似宗敎에 의해서 형성된 宗敎聚落 및 天主敎에 의해서 형성된 敎友村 등이 있다. 윤경숙과 박영조는 '敎人村'이라는 용어를, 이문웅과 임경택은 社會學的 觀點에서 '信仰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신앙촌은 주로 프로테스탄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므로, 이 글에서는 천주교회 관계 자료에서 쓰이는 敎友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尹京淑, 〈鎭安高原 天主敎 敎友村에 關한 文化地理學

철(點綴)된 박해시기에 종교적 결속력을 강화시켰다. 그 안의 신자들은 모든 생활의 초점을 박해와 고발, 배교에 맞춰야 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경제 활동 중 대표적인 것이 교우촌에서의 '옹기 제작'이었다.

옹기를 구울 수 있는 곳은 한적한 산골로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옹기업의 조직적 구성은 신자들을 보호하며, 그들 간의 교류를 도왔다. 이렇듯 천주교 신자들과 옹기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2] 하지만 이들 연구들에서는 하나같이 신자들

的 硏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 朴英助, 〈哲宗 年間 天主敎 公所의 實態〉, 안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 이문웅, 〈천주교 신앙촌의 사회학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9 ; 임경택, 〈천주교 신앙촌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 : 천주교의 토착화 연구를 위한 시론-충청북도 진천군의 신앙촌 사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9).

2) 옹기와 천주교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金英文의 논문이 유일하다(金英文, 《甕器 紋樣 硏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 金英文, 〈옹기 문양에 끼친 천주교의 영향〉, 《교회와 역사》 61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대부분은 교우촌에 관한 연구들과 옹기에 관한 연구들에서 이들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 교우촌에 관한 연구는 교회사적인 측면, 인류학적인 측면, 지리학적인 측면, 사상사 · 문화사적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연구들은 신자와 옹기가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金玉姬, 〈韓國 天主敎 敎友村 形成에 關한 史的 考察〉 Ⅰ · Ⅱ · Ⅲ, 《神學展望》 54 · 55 · 56, 大建神學大學 神學展望 編輯部, 1981 · 1982; 한종오, 《남양 지역의 교우촌 형성과 치명 순교성지에 관한 연구》, 남양 천주교회 성지개발위원회, 1983 ; 金九鼎 · 金榮九, 《天主敎 湖南發展史》, 분도출판사, 1964; 金眞召, 《천주교 전주교구사》 Ⅰ, 빅벨, 1998 ; 金眞召, 〈天主敎 敎友村의 生態〉〉, 《남민》 4집, 서해문집, 1992 ; 車基眞, 〈박해기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과 생활〉, 《교회와 역사》 164호, 1989 ; 車基眞, 〈교우촌의 형성과 신앙생활〉, 《교회와 역사》 246호, 한국교회사연구소, 1995 ; 吳知恩, 〈天主敎 敎友村 共同體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關한 硏究-全羅北道 完州郡 飛鳳面 天呼同의 事例〉,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임경택, 앞의 논문 ; 尹京淑, 앞의 논문 ; 김윤의 · 전성옥, 〈天主敎 傳播 過程 및 敎友村 硏究〉, 《성신지리》 제7호, 1990 ; 崔辰星, 〈全羅道 天主敎 聚落의 特性에 關한 硏究〉,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1 ; 蔡奇秉, 〈內浦地方의 天主敎 敎友村 硏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 이원순, 《한국 천주교회사 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최석우,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 조광, 〈韓國天主敎史 硏究의 省察〉, 《교회와 역사》 164호, 한국교회사연구

의 생계 수단 중 옹기가 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언급할 뿐이다. 옹기와 신앙이 어떤 깊은 관련이 있는지 그 실제를 밝히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신앙생활에 대한 증거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발견된다는 점을 간과(看過)했기 때문이다. 옹기는 신자들의 생활, 그 실제를 알려줄 열쇠이다. 옹기는 당시 상황에서 남길 수 있는 문자 외의 또 다른 기록이었다. 박해 시대 천주교 신자들에 의해 제작된 옹기에는 그들의 상황과 사상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신앙생활에 대한 증거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발견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2장에서는 박해시대 신자들이 옹기를 선택하여 교우촌을 형성하게 된 배경과 그 안에서의 신자들의 생활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신자들의 중심에는 신앙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옹기를 선택한 이유 역시 이와 연관이 있다. 더불어 신자들은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한 옹기를 매개로 신앙 공동체인 '옹기 교우촌'을 형성하였다.[3] 그 안에서의 독특한 생활양식과 신

소, 1989 ; 金翰奎, 〈사학징의를 통해서 본 初期 韓國天主敎會의 몇 가지 問題〉, 《敎會史硏究》 제2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 ; 노길명, 《가톨릭과 조선후기 사회 변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 조광, 《조선후기 천주교사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 朴東玉, 〈迫害期 韓國 天主敎會의 經濟觀〉,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한국 교회사 논문집》 Ⅰ,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 元載淵, 〈병인교난과 신자들의 생활-邪學漢家舍汁物放賣成冊의 분석을 중심으로〉(1~3), 《교회와 역사》 215~217호, 1993 ; 朴英助, 앞의 논문.

○ 옹기에 관한 연구는 민속학, 문화 인류학, 도예학에서의 연구가 활발하며, 옹기를 만들었던 집단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지리학과 종교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다음과 같다.
鄭明鎬, 〈甕器匠과 製造技術에 대한 考察〉(上 · 下), 《실학사상연구》 제 7 · 8집, 母岳實學會, 1996; Robert Sayers and Ralph Rinzler, *the Korean Onggi potter*,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1987; 김용간,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질그릇 갖춤새 변천에 보이는 문화발전의 고유성〉, 《고고민속논문집》 7, 1979; 변사성,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질그릇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논문집》 11, 1998; 伊藤亞人, 〈옹기와 주부〉, 《韓國文化人類學》 제17집, 1985; 류승훈, 〈전북 부안 연동 마을의 옹기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裵桃植, 앞의 논문 ; 金英文, 〈甕器紋樣 硏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 배기동, 〈옹기의 제작기술과 판매방식〉, 《역사민속학》 제6호, 1997.

앙생활을 살펴보도록 한다.

옹기 교우촌 터에서 발굴된 옹기에는 이를 짐작하게 하는 신앙의 흔적이 있다. 그것은 박해시대를 사는 신자들만이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였다. 3장에서는 이러한 언어가 옹기에 다양하게 표현됨을 밝히고, 이를 통해 당시 신자들의 상황을 짐작해 본다. 문양의 특징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옹기 문양에 신앙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우촌 생활에 관한 기록, 신자들의 풍속에 관한 단편적인 기록물, 옹기에 관한 연구물, 구전 등을 중심으로 전개하겠다. 특히 옹기 교우촌에 관한 직접적 언급은 문헌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앙생활을 파악하는 데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옹기를 이용한 신앙생활에 관한 구전내용과《뮈텔 주교 일기》와 달레의《한국천주교회사》는 상당 부분 부합한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옹기 교우촌의 신앙생활과 여기서 파생된 옹기에 나타난 문양의 신앙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4]

2. 옹기 교우촌의 신앙생활

천주교의 유입은 당시 조선사회를 지탱하던 근본적인 성리학적 사회규범과 정치적 상황과 맞물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지충의 조상제사 거부

3) 옹기를 구우며 신앙을 지켜왔던 신자들 집단을 '옹기점 교우촌', '교우촌 옹기점' 등 정의되지 않은 채 사용해 왔다. 이는 초점에 따라 그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우촌의 한 형태로 인식해 왔으나, 그 중요성 만큼 연구된 바는 없다. 이 용어는 필자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천주교 신자들이 옹기 제작 준비에서부터 판매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며 옹기에 그들의 신앙을 투영시킨 독특한 그들 집단을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

4)《韓國天主教會史》上 · 中 · 下(샤를르 달레 원저, 안응렬 · 최석우 역주,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는 이하 Ch. Dallet, 上 · 中 · 下로 표시한다.

는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배척을 받기 충분했다. 가족 친지들이 모여 사는 한 마을에서 이와 같은 선언은 받아들여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천주교 신자들은 고향을 떠나 낯선 도시나 연고가 없고 인적이 드문 산간지방으로 숨어들게 되었다.[5] 경기 · 충청 · 전라도에는 이미 박해 이전부터 많은 신자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박해가 시작되자 경상 · 강원도 등지 산간지대로 도피하며,[6] 교우촌을 형성하였다.[7]

1801년 신유박해(辛酉迫害)로 교우촌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신자들은 교우촌을 신앙생활과 수계생활(守誡生活)을 지속할 수 있는 자구책이라 여겼다. 그러면서 신자들은 화전, 옹기점, 담배농사, 지필묵(紙筆墨)장사, 韓蜂(한봉), 양잠(養蠶), 한의(漢醫),[8] 필경(筆耕), 등짐장사 등을 하며

5) 차기진, 앞의 논문, 1989, 7쪽.

6) 이러한 움직임은 충청남도 내포 지방의 예산 · 덕산 · 홍주 · 면천 · 청양 · 연산 · 남포 · 공주 · 온양, 충청북도의 충주, 전라도의 전주 · 지산 · 금산 · 고산 · 김제 · 무장 · 영광, 경기도의 여주 일대, 경상도 북부와 강원도 산간지역으로 천주교가 퍼져나가게 되었다(黃嗣永, 《帛書》, 94행. "論經路 則畿忠全 素多敎友 慶尙江原兩道 近年避亂者或居之…").

7) 교우촌 형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교우촌이 박해를 피해 산곡으로 은신한 천주교 신자들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결론짓고 있으나, 이전에 교우촌이 존재했음을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특히 忠淸道 內浦地方(오늘날 삽교천과 아산만 일대)의 경우, 李存昌이 한양에서 천주교에 귀의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1785년경이고, 고향을 떠난 것은 1791년 말이었다. 때문에 내포에 세워진 최초의 교우촌은 1790년대 이전에 그의 고향인 여사울(예산군 신암면 신종리)과 인근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蔡奇秉, 〈內浦 地方의 天主敎 敎友村 硏究〉,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93, 24쪽).

8) 신자들이 양잠을 시작한 것은 信敎의 자유가 묵인된 1886년 이후부터였다. 선교사들은 1886년 이희규가 편집한 양잠법 책인《蠶桑輯要》를 보급하였고, 1899년 뮈텔 주교는 서양 잠종을 들여와 널리 보급하였다. 신자들 중 양반이나 중인 출신의 한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醫門寶鑑》같은 책을 통해 한방과 침술을 익혀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金眞召, 〈한국 천주교회의 소공동체 전통〉,《민족사와 교회사》Ⅰ,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278~279쪽). 약국을 운영하는 신자들도 있었다. 이신규(이승훈의 삼남)는 1839년 己亥迫害 때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강원도 산중 교우집으로 피신한 후 반주골 아래 조곡 마을에 거주하게 되었다. 교우촌인 그곳에서 이신규는 약국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를 하기도 하였다(서종태, 〈병인박해 전후 인천 지역 천주교 신앙 공동

생활했다.[9] 이러한 생계수단은 언제든 박해를 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보장했다. 따라서 그들의 경제활동은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이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계산된 수계생활의 방법이었다.

그 중 옹기는 신앙생활을 지원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생각한다. 옹기업은 박해를 피할 수 있는 환경과 이동의 유동성,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경제력까지 갖추었기 때문이다. 박해를 피할 수 있는 환경이란 우선 외부의 낯선 이들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관군의 습격이 있을 경우 도주가 용이한 곳으로 여러 갈래의 통로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옹기 교우촌은 두 지역 이상이 인접한 경계에 위치한다.[10] 이러한 위치적 이점(利點)으로 위급 상황에 대처하고 즉시 다른 지방으로 피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새로운 교우촌을 형성하였고,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옹기를 판매하였다. 따라서 현금화가 가능한 옹기업은 경제력을 갖춘 신앙생활의 지원 수단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옹기업은 양반 출신 신자들의 신분을 숨기기가 쉬웠으며, 특별한 시설이나 도구,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 않고, 기술·연료·점토만 있으면 생산이 가능했다. 특히 옹기는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으므로 교우촌의 신자들끼리 공생공존(共生共存)이 가능했다. 옹기점 일은 천주교의 교리인 평등사상과 노동에 대한 의무, 노동을 경멸하지 않고 신성시하는 관념을 실천할 수 있었다. 이는 당시의 조선인들에게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의식이었다.[11] 그러면서도 신자들에게는 신앙

체에 관한 연구〉, 《인천학 연구》 4, 2005, 178 · 188쪽).

9) 김진소, 앞의 책, 1998, 733~747쪽.

10) "1893년 12월 14일 음성보다 15리 더 먼 곳에서 조그만 고개를 하나 넘으니 충주 땅이다. 숩산의 옹기 마을은 거기에서 15리 거리이다. 우리가 한동안 따라간 골짜기 안으로 서울에서 대구에 이르는 큰길이 나 있다" (《뮈텔 주교 일기》 I,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203쪽).

11) 이곳에서는 공동노동 · 공동이익 · 공동분배의 원칙 실행이 가능했다. 그중 노동을 신성시하여 일요일에는 항상 쉬며, 가마에 불을 땔 때도 告祀를 지내지 않고, 작업은 봄 · 여름 · 가을만 일하고 겨울에는 빚을 내더라도 노동을 안 하는 독특한 옹기점의 사회성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옹기 가마는 비신자들의 눈을 피해 성물을 감추고 공동 집회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일종의 로마 박해시대 '카타콤바'(Catacomba)와[12] 같은 구실을 했다.[13] 옹기 판매는 전국 각지를 돌며 떨어져 지낸 가족과의 연락은 물론 선교와 교회의 소식을 전했다. 특히 각 지방의 정보를 수집하여 선교사가 있는 장소를 탐지(探知)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이점을 갖춘 '옹기 교우촌'은 박해시대의 대표 교우촌으로 발전하였다.

'옹기 교우촌'은 박해를 피해 모인 신자들이 비신자들을 포함한 경우에도 그들과 함께 옹기업에 종사하며[14] 수계생활과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려 했던 신앙공동체이다.[15] 그 공동체 안의 신자들은 모두가 옹기업에

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의 옹기 공방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충북 진천의 새울 공소에서는 믿는 이들끼리 함께 지내며 공동소유, 공동생산, 공동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옛날 어른들로부터 부탁받아 현재까지 이를 실천하고 있었다(임경택, 앞의 논문, 1989, 28~32쪽).

12) 초대 교회 시대에 천주교 신자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큰 박해를 받게 되자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바 등지에 숨어 지냈다. 이것은 공동 묘지 역할과 함께 일종의 지하 도시로서 신자들이 생활하며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을 말한다. 조선의 천주교도 이들처럼 박해를 피해 신자들끼리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함께 지냈으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 그 모습이 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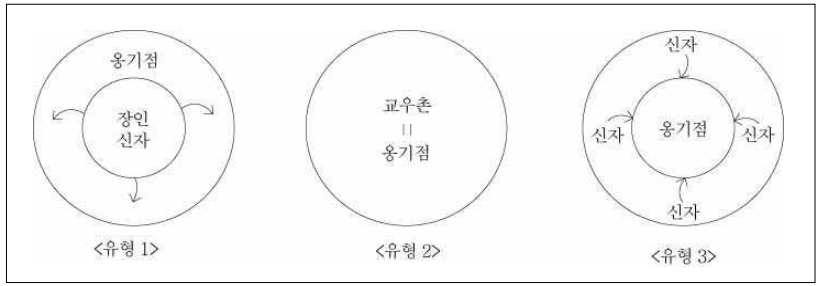
13) 다블뤼(Daveluy) 주교는 몇 주일 후에 이런 편지를 보냈다, "…3월 25일(양력) 聖母領報 축일로 정해졌습니다. 신중을 기하느라고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거행할 수가 없었던 이 의식에 메스트르(Maistre) 신부와 프티니콜라(Petitnicolas) 신부와 (崔良業) 토마스 신부가 모였습니다.…장소도 그렇고 비밀도 지켜야 했으므로 아주 화려하게 거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의 카타콤바에서 하던 식이었습니다"(Ch. Dallet, 下, 260쪽).

14) 옹기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옹기 제작 준비 단계에서부터 옹기 판매까지의 참여를 말한다.

15) 김진소는 丁亥敎難의 원인이 되었던 全羅南道 谷城郡의 옹기점이 기록에 보이는 최초의 옹기 교우촌이라고 하였다(金眞召, 〈敎勢統計表〉, 《天主敎全州敎區 硏究資料集》 第二輯, 湖南敎會史硏究所, 1987, 71~75 · 85쪽). 그러나 황사영을 숨겨준 전라도 출신의 김귀동이 먼저 옹기 교우촌을 이루었다. 그는 본래 고산 사람이었는데, 홍주로 이사하면서 옹기점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 후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堤川 배론산으로 옹기점을 옮겨 황사영을 만났고, 김한빈과 함께 황사영이 숨어 살 수 있도록 땅굴을 파주었다(《純祖實錄》 元年 12月 26日 戊辰條). 그리고 황사영으로부터 교리를 배워 신앙을 더 깊게 가졌다. 이후 황사영이 체포될 때 같이 붙들렸고, 배교를 거부하고 황사영과 함께 사형을 원했다(〈正法罪人秩〉 貴同條 ; 《邪學懲義》, 141~142쪽 ; Ch. Dallet,

종사할 수도 있고, 일부만이 옹기업에 종사할 수도 있다. 이를 다시 분류하면 다음 <圖1>와 같다.

<圖1> 옹기 교우촌의 형성 유형 분류



첫째, 옹기점의 신자가 그 집단 내에 전교를 하여 교우촌화 시킨 경우로 신자들의 감화(感化)로 외교인들에게까지 신앙을 전하였음을 보여준다.[16] 둘째, 옹기점에 있는 이들 모두가 신자인 경우로 정해박해(丁亥迫害)의 배경이 되었던 전남 곡성군 오곡면 승법리의 옹기 교우촌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박해를 피해 각지에서 이주해 온 신자들이 비신자가 운영하는 옹기점에 유입되어 그곳을 교우촌으로 형성한 경우이다.[17]

上, 573~574쪽). 옹기장이었던 김귀동에 의해 옹기점이 교우촌으로 발전하였다.

16) "1893년 11월 20일 칠곡읍에서 30리 거리인 보미면 관내에 있는 마을이다. 29개의 교우집 중에서 25가정이 옹기 굽는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4가정은 야트막한 앞산에서 농사를 짓는다. 이 농사짓는 사람들은 교우들이 개종시킨 신자들이다"(《뮈텔 주교 일기》 I, 184쪽). 이는 옹기점 내에 신자와 비신자가 포함되어 있어 옹기업에 종사하는 신자들이 외교인들을 개종시켜 옹기 교우촌을 형성한 경우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17) 殉教者 元(베드로)은 충청도 結城縣 덕머리 사람으로 비신자가 경영하는 옹기 가마에서 생활하다가 그의 兄과 함께 입교하였다. 이후 洪州 황쇠울로 이사하여 비신자가 경영하는 옹기 가마에서 일하다가 관헌에게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고 석방되어 連山縣 '으실'로 피신하였다. 그곳에서는 신자가 경영하는 옹기 가마에서 일을 하며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밀고를 당하자 형제는 鎭川의 '질마로'로 피신했다(金玉姬, 앞의 논문, 1982, 127쪽). 이는 신자들이 가는 곳은 교우촌이 되며, 박해로 인해 그들은 옹기와 관계를 맺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들은 옹기업을 생활수단으로 삼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공동체에 신자들이 유입되었거나, 신자집단에서 옹기업을 생활수단으로 삼으며 형성되었다. 이런 옹기 교우촌은 뮈텔 주교의 일기에 '옹기 마을'로 자주 등장한다. 그가 성사를 주기 위해 자주 찾았던 이곳은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우촌으로 확산되었음을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1900년대 초 선교사들이 남긴 다음 사진에서 옹기 교우촌의 모습을 짐작하게 한다.

선교사들은 박해를 받으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우촌이라는 독특한 신앙공동체를 이룬 조선의 천주교를 위와 같이 기록하였다. 이는 조선 천주교를 대표하는 교우촌의 모습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중심에는 '옹기 교우촌'이 있었다.



<사진 1>



<사진 2>



<사진 3>[18]

이곳의 신자들은 피난해 온 이향민으로 완전히 과거의 신분이나 재산, 학문의 정도를 가릴 수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때문에 혼사도 신분과 재산 · 학문의 정도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고, 신자들끼리는 통혼(通婚)하던 교회법에 따랐다. 특히 옹기 교우촌의 신자들은 다른 옹기 교우촌의 신자와 결혼하였다.[19] 이러한 영향으로 신유박해 이후 신앙은 초창기와 달리 주로 가정 내에서 부전자습(父傳子習)이나 모전여습(母傳女習)으로 전파되었다.[20]

> 서강 수철리에 살던 조성노 · 최순명 부부는 가족 모두와 부평 마오장리로 이주하여 농사를 지으며 신앙생활을 하였다. 조성노는 이미 1820년에 부모에게 천주교를 배워 신자가 되었고, 그의 부인 최순명은 11세에 부모에게 배워 신자가 된 뒤 16세에 조성노와 혼인하였다. 그 후 최순명이 시고모에게 성모경과 천주경을 배웠다.[21]

이처럼 천주교의 신앙은 가정 내에서 세습되었다. 하지만 이는 당시 사

18) 〈사진 1〉은 옹기 교우촌으로 주로 소개되는 사진으로 세거리 공소(경북 상주)의 모습을 1915년 11월에 찍은 사진이다. 〈사진 2〉는 매화동 본당의 동창(황해도 안악군 용문면) 공소 신자들의 모습. 1902년 10월 르 장드르 신부가 은율 본당에서 부산으로 떠나기 전, 우도 신부(매화동 본당 주임)와 함께 찍은 것이다. 〈사진 3〉은 웁실의 옹기장이들이란 제목의 사진이다. 웁실은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우곡리에 있는 마을로, 기록상 1892년부터 공소가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진은 르 장드르 신부가 사목방문 시 옹기업에 종사하던 신자들을 찍은 사진이다(한국교회사연구소, 《빛 · 믿음 · 흔적》, 분도출판사, 2004, 189 · 104 · 119쪽

19) 김정남(1926년생) 씨의 증언에 따르면 점끼리 혼인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옹기점은 옹기점끼리, 사기점은 사기점끼리 사돈을 맺었다고 한다. 그녀는 부친과 조부가 천주교 신자였는지는 모르나, 시아버지(박氏)가 천주교 신자였으며, 승법리에서 여우내로 내려간 천주교 신자였던 강이팔이 처남댁으로 삼으려 중매를 했다고 한다. 강이팔과 박氏는 사위와 장인 관계로, 천주교 신자였으며, 옹기일을 세습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통해 옹기점의 혼인법과 교회의 혼인 관계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이후에도 전통처럼 유지되고 있다.

20) 최용규, 〈己亥 · 丙午敎難期 天主敎徒의 分析的 考察〉, 《敎會史 硏究》 6, 1988 참조.

21) 서종태, 앞의 논문, 2005, 190쪽.

회구조의 영향으로 세습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뿐 신앙은 스스로가 선택하였다.

> 복음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하던 한 외교인 처녀가 부모의 명으로 외교인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에서 이 여인은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날마다 기도문을 외우기를 계속했습니다.…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그지없이 온순하고 참을성 있고 그가 받는 아주 하찮은 지시에도 언제나 지극히 공손하게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처녀는 경건한 주의로 듣고 있다가 그 날부터 올케와 함께 천주교인들의 기도문을 배우기 시작했고 올케와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전에는 경솔하고 화를 잘 내고 하던 딸이 얌전해지고 무슨 일에나 올케와 비슷하게 되었습니다.…어머니도 이 비밀의 설명을 들어야했습니다. 그 설명이 어머니에게 주어졌고 그것은 또한 딸에게서와 같은 결과를 어머니에게도 나타났습니다.[22]

> 어느 동리에 열두 가구가 살고 있는데, 2년 전부터 세 가족만 빼놓고는 전부 다 천주교에 입교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은 세 가족은 … 여러 가지로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내와 친절과 겸손으로 저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정다운 권고까지 하여 주었으므로 저들도 감동되어 천주교에 입교하였습니다.[23]

위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 신입 교우들은 천주를 알고 실천하는 이들로부터 감화(感化)되어 스스로가 신앙을 선택하였다. 이 같은 조건은 가정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세습의 형태로 이어졌다. 신자들의 열심한 기도생활과 복음을 실천하는 모습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충분했다.

22) Ch. Dallet, 下, 255~256쪽.
23) 崔良業 신부가 도앙골에서 1850년 10월 1일자로 보낸 일곱 번째 서한 내용임(배티 사적지 편, 위의 책, 289쪽).

옹기 교우촌의 경우에는 신앙을 포함한 직업까지 세습되었다.[24]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집단적이고 지역적으로 옹기 교우촌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직업의 특성상, 종교의 특성상 신자들은 그들끼리 그 안에서 충족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만의 언어를 만들어 소통하였다. 이곳에서는 소통의 도구로 옹기를 사용하였다.

옹기는 십자고상(十字苦像) · 성패(聖牌) · 성수(聖水) 등과 같은 성물(聖物)을 감추기에 적합했다.[25] 이러한 성물을 옹기에 감추고 옹기를 파는 장수로 위장하여 신자들에게 교회의 소식을 전했다.[26] 특히 옹기를 팔러 다닐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이라면 전교(傳敎)의 손길이 닿을 수 있었다. 이러한 옹기의 신앙적 활용을 이용해 서로가 신자임을 알아볼 수 있는 언어를 옹기에 새겨 소통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24) 박해를 시작으로 옹기는 천주교와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증거는 현존하는 옹기 공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의 대부분은 가업으로 옹기업을 하는 천주교인들이다(李東姬, 〈한국옹기의 지역별 특성〉,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5, 50~89쪽). 옹기공방과 종교의 관계를 나타낸 다음의 표를 통해 옹기업은 지금까지 家業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옹기업의 전승 방법과 천주교 신앙의 전승 방법은 가족을 중심으로 계승되어 온 것이 특징이다.

지 역	서울 · 인천 ·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종 교 관 계	천주교(90%) 기독교(10%)	천주교 (50%) 기독교 (50%)	기독교 · 유교 (20%) 천주교 (80%)	천주교 (50%) 불교 · 무교 (50%)	기독교 (60%) 불교 · 유교 · 무교 (40%)

25) 김진소, 앞의 논문, 2000, 261쪽. 성물을 감추는 것뿐만 아니라 성수 항아리로도 사용하였다(《뮈텔 주교 일기》 1, 44쪽).
26) 옛날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옹기 장사들의 목에는 묵주가 걸려 있었고, 물 한 잔을 마셔도 십자聖號를 긋는 것을 보았으며, 그들에게서 천주교 교리를 듣고 입교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김진소, 위의 논문, 278쪽).
7대째 옹기업과 천주교 신앙을 이어받은 여주의 금사토기를 운영하는 김일만 씨의 증언에 따르면 남자들은 옹기를 만들고, 여자는 옹기를 팔러 다니며 얘기하며 천주교 신자들의 경로를 알 수 있었다고 전한다.

이 밖에 옹기를 굽는 가마는 그들의 신앙을 유지시키는 공간이었다. 옹기 가마는 기도생활을 하고 전교를 하기 위한 공간이자,[27] 제대(祭臺)를 차리는 성전(聖殿)이었다.

> 1899년 12월 18일 해미 미럭벌(현 충남 서산군 운산면 용장리) 옹기 마을의 공소 방이 너무 좁아서 교우들이 한 옹기 공장에 제대를 차렸다. 26일 굴미(현 충남 당진군 정미면 대운산리) 옹기 마을의 신자들이 성사를 받기 위해 사기소로 갔었다. 27일 신자들이 옹기 공장에다 제대를 차렸다.[28]

이렇듯 박해시대를 살던 신자들은 그 상황에 적응하며 신앙을 유지했다. 위와 같이 성직자의 방문으로도 그들은 행복했다. 성직자 없이 진행되는 집회에서는 미행의 눈을 피해 어렵게 모여 조심스레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전부였다.

>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성당도 公所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지요. 主日이 되면 신자들이 12명 내지 15명이 어떤 때는 이 집에, 어떤 때는 저 집에 모이는데 외교인에게 미행당하지 않기 위하여 항상 은밀히 모입니다. 그들은 主敎가 명한 기도문을 낮은 목소리로 외우고 그날 복음의 해석을 듣습니다.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묵주의 기도를 하고 敎理問答을 배우며 아이들에게 敎理問答을 가르치는 데 보냅니다. 朝鮮사람들에게는 主日을 거룩히 지내는 것이 여기에 그칩니다.[29]

27) 1846년 丙午敎難 무렵 아버지가 순교한 후 인천 함박리로 내려와 옹기를 구우며 생활했던 심낙천은 밤이면 옹기를 굽는 움막에 몰래 가족들을 모아놓고 기도생활을 하였고, 얼마 뒤에는 이웃마을 대골 방아다리 부근에 사는 윤용배에게 전교하기도 하였다(서종태, 앞의 논문, 2005, 175쪽).
28) 《뮈텔 주교 일기》 2, 434 · 436쪽
29) Ch. Dallet, 下, 252쪽.

그러나 신자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신앙을 지켜갔다.[30]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우애(敎友愛)를 나누며 한 가족처럼 지냈다.

> 신자와 예비 신자들은 한 집안 식구들이 되어 서로서로 의지하며 신앙이 더욱 굳어지고 교우의 본분을 더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힘을 합해 여러 사람을 개종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31]

그들은 교우촌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기도하며, 가진 것을 서로 나누었다. 먹을거리가 해결된 신자들은 연명할만한 곳을 찾지 못해 유랑하는 신자들을 불러들여 양식과 농토를 나누어주며 함께 사는 등 서로를 먼저 생각했다.[32] 이로서 이들의 신앙은 더욱 굳어질 수 있었다.[33] 옹기 교우촌을 포함한 교우촌은 이 같은 교우애로 가족과 같이 하나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신자들은 계속되는 박해의 위협을 극복하고 신앙을 전파해 나갔다.

30) 1889년 4월 22일자로 보두네 신부가 뮈텔 주교에게 보낸 서신에 전라도의 공소를 방문하면서 바로 이곳 교우촌이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를 재생시키고 있다고 칭찬하였다.
31) Ch. Dallet, 下, 264쪽.
32) "자기들이 목격한 무서운 광경이나 교훈되는 행적을 이야기함으로써, 서로 도와 가며 聖書 몇 권이나 聖物 몇 가지를 찾아내고, 서로서로 격려하여,…모든 이가 그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아무 것도 없는 형제들에게 무슨 도움을 베풀어 줄 줄을 알았고, 과부와 고아들을 거두어 주니, 이 불행한 시절보다 우애가 더 깊었던 일은 일찍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일을 목격한 노인들은 그 때에는 모든 재산이 정말 공동으로 쓰여 졌었다고 말한다"(Ch. Dallet, 中, 16쪽). 하나의 사례를 더 들면 김대건 신부의 동생 蘭植과 그의 당질 顯采의 경우가 그랬다. 그들은 생활 터전을 찾다가 전북 임실군 덕치면 회문산 먹구니에 들어와 화전을 이루어 조를 심었는데 大豊이 들어 유랑하는 신자들을 불러들여 곡식을 나누어주며 그곳에서 함께 살도록 하였다고 한다.
33) Ch. Dallet, 下, 264쪽.

3. 천주교 신앙이 옹기 문양에 끼친 영향

그들 나름의 이 같은 노력에도 채워지지 않은 신앙의 열망은 선교사 유입이었다. 이를 위한 신자들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그 과정 중에는 외교인들의 박해도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신자들은 외교인들의 눈을 피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였다. 가장 먼저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아야 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 유지되어야 할 여러 비밀들을 지킬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신자들끼리 자신들을 알아 볼 수 있는 그들만의 언어를 정한다. 그 대표적인 언어는 십자성호(十字聖號)였다.

> 다블뤼 신부는 이런 말을 썼다. "1848년 말경에…박해로 인해…고립 상태에 실망한 나머지 그 중의 한 사람이 신자를 찾아나서 행상이나 거지로 변장하고 많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좀 팔거나 동냥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동냥을 받으면서 성호를 긋곤 했습니다. 천주께서는 그의 노력을 축복하시어, 한 번은 그가 신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신자는 그가 성호 긋는 것을 알아보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신자인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죽 연락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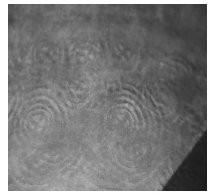
> 베르뇌 주교는 이런 편지를 보냈다.…"3월 15일(양력)에 우리는 조선의 어떤 큰 마을 앞에 정박하게 되었습니다.…5일 동안 우리 배는 그 표를 보고 신자들이 우리를 알아보기로 되어 있는 큰 십자가가 그려진 기를 돛대에 달고 이 섬들의 작은 灣을 모두 돌아다녀 보았으나 이 5일 동안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예수 受難祝日 아침 9시쯤 작은 배 한 척이 우리에게로 향하여 오며 선원들이 손을 하늘로 올리고 十字聖號를 많이 그으며 우리 신호에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신자들이었습니다."[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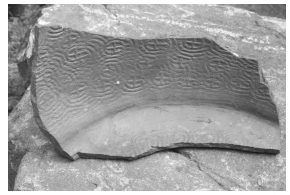
34) Ch. Dallet, 下, 174~175쪽.
35) 조선에서 쓴 1856년 9월 4일(양력)字 서한, 이 편지는 파리외방전교회 본부에 보낸 것이다(Ch. Dallet, 下, 235~236쪽).

> 3월 19일(양력) … 저희를 나라 안에 맞아들이기로 되어 있는 조선배에 약속 장소로 지정해준 섬 바로 근처에 닻을 내렸습니다. 돛대에는 흰 바탕에 커다란 파란 십자가를 그린 깃발을 올립니다. 이것이 암호 표지입니다. 저희들 앞을 내왕하는 많은 조선 배들은 서양 여러 나라의 깃발들이 왜 가지각색으로 얼룩덜룩하게 물들여져 있는지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만큼이나 저희 깃발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 저희들 가까이로 지나가며 그 중 한 사람이 은밀히 저희 안내인 중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니, 안내인은 서둘러 대답을 합니다. 천주는 찬미 받으실지어다! 이제 저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 안내인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조선 사람들은 급작스런 조작으로 돛을 펴서 그들과 해안 사이를 막고 모두 함께 커다랗게 十字聖號를 긋습니다.[36]

이같은 십자성호는 숨어 지내는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었다. 이것이 옹기 교우촌에서는 옹기 문양을 통해 표출되었다. 옹기에 나타난 표시들은 마치 성호를 긋는 것과 같다. 이 표시들은 성호의 모양뿐 아니라 서로가 신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성호의 기능까지 닮았다. 그런 옹기의 문양은 소통의 열쇠였다.

아래 사진들은 각각 정해박해(丁亥迫害)의 배경이 되었던 곡성의 옹기 교우촌에서 발굴된 옹기와 노송 공소 인근 옹기점에서 생산한 옹기이다. 옹기 안에는 가로와 세로가 교차하는 십자문양의 도개자국(⊕)이 찍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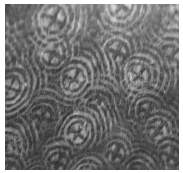


<사진 4> 곡성 옹기 교우촌 옹기와 도개자국[37]


<사진 5> 노송 공소의 옹기[38]

36) Ch. Dallet, 下, 242~243쪽.
37) 1990년에 정정표(의사, 경북 구미시 거주) 씨는 곡성 옹기 교우촌에서 온전한 형태의

이는 문양이라기보다는 가로와 세로를 교차시킨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양의 도개자국이 발견된 옹기 중에는 다음과 같은 십자문(十字紋)을 볼 수 있다.







<사진 6> <사진 7>






<사진 8> <사진 9>

이들은 기존문양을 이용하거나 단독으로 표시된 십자문양이다. 이를 음각 또는 양각으로 표현하는 등 표현 방법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분명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십자표시를 해 두었다는 규칙성이 이들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표현된 십자 표시를 십자

옹기를 발굴했다. 그는 오기선 신부로부터 옹기 교우촌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1990년부터 전국 성지와 교우촌을 답사하며 유물을 찾았다. 그러던 중 곡성에서 옹기 안쪽에 십자표시의 도개가 찍힌 옹기를 발굴하여 보관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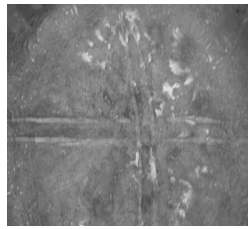
38) 충청남도 연기군 노송리 김연호씨 부엌에 묻혀 있던 물독으로 곡성 옹기 교우촌에서 발굴된 옹기의 도개와 동일한 형태다. 노송공소 회장 김창호(아우구스티노,, 1931년생)는 이 도개의 십자 표시를 천주교를 믿는 신자들이 만들었다는 표지이면서 의미 있는 信心의 표현으로 해석하였다(천주교 대전교구 조치우너성당 노송공소, 《노송공소 100년사》, 마이애드, 2006, 82쪽).

모양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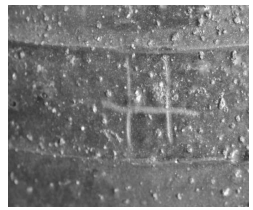



한 선씩 교차





두 선씩 교차


한 선과 두 선 교차

<圖 2> 옹기 교우촌의 옹기에 나타난 십자문양 분류

이같이 옹기에 나타나는 표시들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감춰져 있다. 이는 분명 어떠한 의도에 의한 것임을 뜻한다. 같은 십자 표시이지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표시를 했다는 것은 신자임을 감추기 위한 의미

가 더 크다. 옹기의 문양은 장인의 의도된 바대로 표현된다.[39] 이러한 의도는 신자들 간의 소통을 위한 창치였다.[40] 서로가 신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 같은 소통의 언어는 성호나 십자 표시뿐 아니라 "예수·마리아" 기도,[41] 신호 등이 있었다.[42] 방법과 표현은 달라도 그들이 표현하고자 한 것은 천주를 향한 믿음이었다.

> 蒙古에서 보낸 메스트르(Maistre) 신부의 1846년 3월 3일字(양력) 서한에서 이렇게 밝혔다. "당신이 천주교인이라고 하지만 참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오." "그건 쉬운 일이요. 여기 천주교인의 표가 있소." 이렇게 말하면서 선교사는 십자성호를 그었다. 그는 또한 묵주의 십자가도 관리에게 보여 주며 말하였다. "당신이 가지고 있을 황제의 칙령에는 천주교인들의 십자가를 공경한다고 쓰여 있을 거요. 우리는 이 천한 쇠붙이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구세주 천주를 경배하는 거요.[43]

39) 이때 사용되었던 표시(+) 또한 민속신앙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경상도 지역의 경우, 무당이 굿을 할 때 떡시루에 십자를 그리며 때로는 굿이 끝난 다음 대문 앞에 십자를 그린다. 젓가락을 열십자 모양으로 밥공기에다 올려놓고 부은 물은 병을 치료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대나무를 열십자로 꽂으면 묻혀 있는 시신을 야생동물들부터 보호하는 힘을 발휘한다고 믿었다. 이때 그 힘은 젓가락이나 대나무가 아닌, 그것이 그리고 있는 십자형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옹기에 나타나는 십자가 역시 이러한 주술적 의미의 민간신앙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주술적 의도였다면 불길한 그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겉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표현했을 것이나, 옹기에 나타나는 표시들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감춰져 있다. 같은 십자 표시이지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표시를 했다는 것은 신자임을 감추기 위함의 의미가 더 크다.

40) 뮈텔 주교의 1893년 12월 15일자 일기에는 충주의 崇仙 옹기 마을에 20리 떨어진 곳의 武基 옹기 마을 교우들도 찾아와 성사를 보았다고 전한다(《뮈텔 주교 일기》 1, 203쪽). 이는 교우촌끼리 연락망이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41) "밤에 만나 '예'냐 하거든 '수'냐 하면, 우리 교우로 알라."(《朴淳集의 證言錄》(一), 1888, 7면 20행)

42) "우리는 손에는 흰 손수건을 들고 허리띠에는 붉은 색깔의 작은 차 주머니를 차고 군중 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조선 밀사들이 우리를 알아보도록 약속된 표였으며,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접근하라는 표였습니다 … 우리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로 오고 있었습니다."(김대건 신부 서한 아홉 번째 서한)

윗글에서 밝히듯 신자들은 십자성호에 의미를 두었다. 이를 표현하는데 소재로 삼은 쇠붙이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십자문양을 표현한 옹기 자체에는 신앙적 의미가 없다. 단지 옹기는 십자를 표시할 수 있는 도구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다. 하지만 십자 표시를 감추어 암호적 성격을 부여하는 데 옹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틀림없다. 또한 옹기는 소통의 도구로써 그들만의 연락 체계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이때 옹기는 신앙 전파의 도구이자 언어 그 자체였다. 문헌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100여 년간 지속된 박해를 경험한 신자들은 배교하는 이들을 경계(警戒)해야 했기 때문이다.[44] 단지 기록에서는 비밀리에 어떤 표를 정하여 연락을 했다고 언급한다.[45] 이때 표

43) Ch. Dallet, 下, 98쪽.

44) "외교인들에게 들켜 密告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끊임없는 공포 속에 살아야만 하였다. …같은 교우 집안에도 조선에 서양인 신부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떤 배반자나 입이 가벼운 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방침을 취하게 되었다.…천주교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네. 예수가 제자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목적에 이르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야"(Ch. Dallet, 中, 359~360쪽).
"한 말로 聖職者를 진실히 그리워하고, 神父가 오기를 진심으로 열망하였다. 李 요한은…자기의 양반계급을 숨기고 자기가 그로 인하여 갖은 侮蔑과 박대를 받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使臣行次를 따라가는 商人과 하인들 틈에 섞여가기로 작정하였다. 지난날에 당한 재난과 배반으로 인하여 좀 더 신중하여진 교우들은 이 새로운 계획을 짠다는 것과 그 상세한 내용을 대부분의 신입 교우들에게는 알리지 않도록 일을 꾸몄다"(Ch. Dallet, 中, 18쪽).

45) "當竭力以應承之 然不可以日月期也 經營周旋 少不下三數歲 而越境之行 難者有二 一則頭髮 一則口舌 頭髮易長 口舌難變 若言語便利 無甚危難 罪人之意 欲以本國一人 預先入堂 敎年少相公們以東國言語 以備後日之用 極爲妥當 未審鈞意若何 如蒙允許 則彼此 打箇暗號 約束丁當 以冬門爲期 冬門不便 更以春門爲期 可望其順成 而又有極便者 中國敎友熱心謹愼者一人 移家於柵門之內 務極嚴愼 不出聲聞 開了店鋪 接待行人 則往來通信之際 甚不費力 其中妙處 不可勝言 此是東國生命關頭 而爲之不甚難 如有矜念."(黃嗣永, 〈帛書〉, 98~99行).
"우리는 1790년에 北京 주교가 조선 교회의 대표 尹有一 바오로와 禹 요한 세자에게

시는 외국 선교사들의 행방을 전하거나 박해와 같은 위급 상황을 알리는 것으로, 신자들끼리 서로를 알아보기 위한 언어였다. 이러한 사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것을 각오한 이들에 의해 비밀로 지켜졌다. 혹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옹기를 깨 증거를 소멸시킬 수 있었다. 이로써 옹기의 어떠한 표시는 암호적 성격을 지켜낼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전하는 증언 하나가 있다. 그 어떠한 표시를 옹기에 새겼다고 하는 것이다. 장날이 되면 옹기 교우촌의 신자들은 표시를 해 둔 옹기를 팔러 장에 나가 회초리나 막대기 끝으로 그 표시를 치며 민요나 타령을 불렀다고 한다. 만나기로 한 다른 교우촌의 신자는 이 소리를 듣고 찾아왔고, 회초리나 막대기 끝을 보고 표시를 확인한 후에는 상대만 들을 수 있도록 "찬미 예수"·"아멘"으로 서로가 신자임을 확인했다고 한다.[46] 그러고는 외국 신부들의 이동 상황과 이에 따른 각 성사와 미사 일정과 장소에 관한 정보, 박해의 시작과 멈춤에 관한 정보, 교우촌 공동체 간의 연락과 헤어진 신자 가족들의 안부 등의 정보를 교환했다고 한다. 이 증언의 배경은 장(場)이다. 문헌에서 신자들끼리 연락을 취하는 장소로 등장하는 곳 역시 장이다. 또한 사료에 언급되어 있는 어떠한 표시로 연락을 했다는 내용이 부합한다. 회초리 끝으로 표시를 가리키며 타령을 불렀다는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기까지 하다. 이는 눈에 쉽게 띄지 않는

머지않아 牧者를 보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 마카오의 在俗신부 요한 도스 레메디오스가 그에게서 조선 선교사로 임명되어 北京에서 출발하였다. 해마다 조선 使臣 일행이 귀국할 때에는 중국과 조선 국경에 장이 서고, 두 나라의 많은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러 그리로 모여 든다. 신부가 그해 **장에 가기로 조선교우 대표들과 약속**이 돼 있었다. **알아볼 만한 어떤 표**를 단 조선 교우들도 그리로 가서 그를 맞아 자기들 나라로 인도하기로 되어 있었다"(Ch. Dallet, 上, 375~376쪽).

46) 이 증언은 1994년 전남 광양에서 한종오의 강연에 참석한 이들로부터 들었다. 이때 강연을 했던 한종오는 성 황석두 루가서원의 사장으로, 오기선 신부와 함께 성지 발굴과 개발을 위해 교우촌 조사를 해오면서 어느 老敎友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이라고 전하였다. 이 같은 증언을 오기선 신부로부터 들었다는 이들도 있다. 돌아가신 오기선 신부를 기억하기 위한 장학회에서 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들 중에는 오기선 신부와 함께 성지 개발 현장을 다니며 사진으로 기록을 남긴 감독 김영걸 씨도 있다.

곳에 십자 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초리 끝으로 그 표시를 가리켰던 것으로 보인다.[47]

이 같은 계산된 신자들의 치밀함은 일본의 경우에도 찾아볼 수 있다. 도쿠가와 막부가 천주교를 엄격하게 금지했던 시대 '숨어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던 신자들은 불교도로 가장하고자 아이를 안은 관음상 뒷면에 금 십자가가 새겨진 <사진 10>의 '마리아 관음상'에 기도를 올렸다.



<사진 10> 일본의 '마리아 관음상'의 여러 모습

주로 나가사키에 숨어 사는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 성모상을 이와 같이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마리아 관음상'은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천주교 관련 성물(聖物)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 천주교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새겨 놓았다. 이러한 점은 우리의 경우와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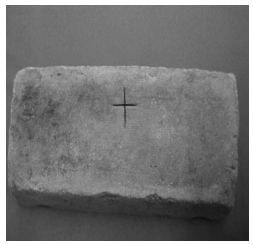
하지만 이는 우리와 시대와 나라가 다르다. 그러나 이는 천주교가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일어난 신앙행위라는 공통분모임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박해시대 신자들의 모습을 옹기에서 찾을 수 있었다. 당시 박해를

47) 실제 옹기에서 확인된 표시들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사료적 가치가 있다.

피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신자들의 노력은 옹기 뿐 아니라 그들이 생활한 곳곳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사진 11>[48]



<사진 12>[49]



<사진 13>[50]

교우촌 가마터 유적지에서 발굴된 사기편에 새겨진 <사진 11>의 십자문양, <사진 12> 벽돌과 <사진 13> 기와에 선명하게 새겨진 십자표시가 바로 그것이다. 이 사진들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십자 표시는 앞서 살펴본 옹기의 십자 표시와 동일한 의도로 표현된 것이다. 장식으로서의 문양이 아닌 어떠한 표시라는 점은 박해 당시 교우촌에서 제작된 것임을 뒷받침한다. 박해를 피해 신앙을 지키려 했던 이들에게 위와 같은 어떠한 표시나 표현은 신앙을 대신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 같은 십자문은 한국의 고미술품, 건축물, 민속품의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51] 하지만 이를 보고 그리스도교의 상징이라고는 말하지

48) 진천 백곡과 배티 유적지 중간 삼박골 교우촌 도자기 가마터에서 발견된 십자가 모양이 새겨진 백자사발.

49) 곡성본당 박병규 회장이 당고개 점굴에서 발굴한 십자표가 있는 벽돌로, 한종오,《한국천주교 성지》Ⅰ, 성 황석두 루가서원, 1987, 207쪽에 실린 사진.

50) 관청리에 있는 古家에서 발견된 십자표가 완연하게 새겨진 기와로 곡성 본당에서 보관하고 있었으나(한종오, 위의 책, 207쪽), 지금은 광주가톨릭대학교에 보관 중이다.

51) 수많은 전통무늬 중 亞字箭紋(아자살무늬), 井字箭紋(정자살무늬), 井字細箭紋(정자세살

않는다.[52] 왜냐하면 이는 천주교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이전부터 사용되었던 전통 문양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십자문은 미적 양식의 하나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옹기와 백자, 기와 등에 의도적으로 감추어진 표시들은 전통 문양의 계승으로 보기는 어렵다. 집을 지을 때 사용하기 위한 벽돌과 기와에 새겨진 십자 표시는 기능적으로나 장식적으로 어떠한 의미도 없다. 다른 벽돌과 기와가 그들끼리 맞물려 기물이 쌓이면 표시된 부분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 나타나는 십자는 어떠한 의도로 새긴 표시라고 할 수 있다. 그 의도란 박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신앙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암호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십자 표시는 전통 문양과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옹기의 십자 문양은 신자들의 신앙 표현이었다. 본래 옹기에는 장식성 보다는 실용적인 면에 치중해서 문양을 표현한다. 그리고 소망이나 바람도 직접이기보다는 은유적으로 그릇의 밑이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살짝 넣어져 있다.[53] 이러한 점을 이용해 신자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었다. 이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이후에 나타난 옹기의 문양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숨겨왔던 십자 표시나 교회의 상징인 하트 · 종 문양과 예수 찬미의 글귀 등이 표면에 나타난다.[54]

무늬), 十字箭紋(십자살무늬), 曲頭紋(돌림무늬), 十字團柱紋(십자둥근무늬)은 교회의 십자가와 닮았다.

52) 수직선은 인생, 건강, 행동력, 확실성, 안정성, 남성적인 것 등을 상징한다. 수평선은 수동적이며 여성적인 것, 죽음, 휴식, 물질, 세속적인 것 등을 상징한다. 이러한 상징을 가진 두 선이 교차하여 생긴 십자 문양은 가장 역사가 깊고 광범위한 표시이다. 십자는 수직선과 수평선, 신과 속세, 정신과 물질, 삶과 죽음, 남성과 여성 등 정반대의 개념이 조화를 이룬다. 네 방향을 지시하고 교차 지점을 뜻하며 신성함을 상징한다(김경중,《사인 · 심볼 · 문양》, 미진사, 1985). 전통 문양의 십자는 이와 같은 의미로 보고, 예수의 순교 이후 십자가는 그리스도교의 성스러운 상징으로 본다.

53) 이영자,《옹기문양전》, 옹기민속박물관, 2002, 3쪽.

54) 특히 옹기 연가에 보이는 십자가, 종, 비둘기 모양은 연기 배출구로서 세 면을 뚫어서 표현한 투각(透刻) 기법으로, 산속에서도 이 연가를 보고 신자가 있음을 나타내던 표시

어느 생계 수단보다 옹기를 선택한 집단에서 이러한 신앙의 증거가 나타나는 이유는 그들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옹기라는 매개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시 그들의 신앙과 종교의 상징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신자들의 생계 수단 기능을 지닌 옹기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었으므로 옹기를 신앙 전파와 유지의 수단으로서 활용하기에는 충분했다.

이로써 끊임없는 박해를 겪고 있던 신자들에게는 박해의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힘을 제공했다. 여기에 힘을 더한 것이 교우촌이었다. 교우촌은 신유박해 이후 천주교의 중심에서 신자들을 보호해 주었고, 공동체 의식과 교우애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큰 힘을 발휘했다. 교우촌의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 그들은 박해 중에서도 신앙을 보존하여 오늘의 한국 천주교를 이루었다.[55]

4. 맺음말

신자들은 교우촌의 공동체 삶을 통해 박해 중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 교우촌은 천주교사(天主敎史)의 초기 모습을 담고 있는 중요한 지

이기도 했다(이영자, 위의 책, 2002, 110~115쪽 참조). 이 책에서는 성경의 마가복음 등에 나오는 '五餠二魚의 기적'을 예로 물고기 문양이 천주교 관련 문양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물고기 문양은 다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부분에 사용되었다. 이것이 신자들의 신앙을 표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중 같은 책 113쪽에 소개한 사진에는 '대정오년시월(大正五年十月)'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옹기가 있다. 그 옹기의 오른쪽 아랫부분에는 "봉미심차신문하에듬매하온지 오래옵니다 황공무지○○아뢰옵니다 찬미예수"라는 문구가, 밑바닥에는 "무하세 오나니리 황공무지무한하리 예수찬미"라는 4줄의 글귀가 새겨져 있다. 마디마디의 의미는 정확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좋은 예이다.

55) 김영장, 〈한국 초기 교회에서의 회장의 역할과 권한에 대하여-한국 교회 지도서를 중심으로〉, 《이성과 신앙》 25호, 수원가톨릭대학교, 2003, 213쪽.

표(指標)로서 그 중심에는 옹기 교우촌이 있었다. 극심한 박해와 사회적 천대 속에서 이 소박한 공동체는 그들의 종교적 믿음을 굳건히 해주었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데도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다. 이로 인해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세(敎勢)는 오히려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서민층으로까지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옹기 교우촌 안에서의 생활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그 안에서 교우애는 신자들에게 종교적 소속감을 부여하였다. 이때 옹기업은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직업이자,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정보 교류의 수단이었고, 그들만의 소통을 위한 도구였다. 이를 위해 적극 활용된 것이 옹기였다. 옹기에는 신앙을 표현할 수 있었고, 신앙에 필요한 성물을 감출 수도 있었다. 특히 생활 용기로 친숙한 옹기는 심리적인 공포감까지 완화시켜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의 가마는 기도 생활 공간이자 제대를 차리는 성전이었다.

따라서 그 중심에 있었던 옹기에는 그들의 신앙과 삶, 사상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옹기의 문양이다. 이는 단순히 옹기를 장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신자들은 옹기 문양이 갖는 기능에 신심을 담았다. 여기에 신자임을 알 수 있는 표시인 십자성호의 기능을 이입하였다. 이로써 옹기의 문양은 신앙을 알리는 표시가 된다. 이 같은 사실은 기록되지 않고 비밀이 지켜졌기에 옹기에 나타난 표시는 암호적 성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생활 공동체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옹기 교우촌이 있었고, 그곳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의의(意義)가 있다. 첫째, 박해를 이겨내기 위한 자구책으로 형성되었다는 점. 둘째, 그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 셋째, 비신자와의 조화를 이루며 선교를 이끌었다는 점이다.

박해와 피은(避隱)으로 점철(點綴)되는 19세기 천주교사에 있어 위와 같은 기능과 의의를 지닌 옹기 교우촌에 대한 기록은 미흡하다. 하지만

분명 박해시대를 대표하는 신자들의 신앙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그들의 생활 용품에 초점을 맞췄다. 옹기업의 직업적 성격, 위치 조건, 경제적 이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옹기 교우촌이 갖는 신앙적 활용 가능성은 컸다. 이로써 옹기 교우촌에서 제작한 옹기의 일부에 나타난 문양이 종교적 의미를 지닌 표시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박해시대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신자들 간의 소통 등을 문헌을 통해 직접적으로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간과(看過)했던 옹기 교우촌의 실제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과제로 삼아 연구하겠다.

주제어 : 옹기, 교우촌, 천주교 박해

투고일 : 2008. 3. 28　심사 시작일 : 2008. 4. 1　심사 완료일 : 2008. 4. 16

ABSTRACT

A Study on Onggi-producing Catholic Brotherhood Communities in the 19th century

Kim, Hye Suk
Tteok Museum

Korean Catholicism, which was begun by intellectuals out of academic curiosity in the 18th century, has been accommodated and developed in line with Korean cultural climate. The history of Catholicism in Korea, however, was not all smooth sailing. With accusations of threatening the existing social order, tradition and especially social foundations built by Sung Confucianism, Catholicism was ruthlessly persecuted. In the hardship, it was Catholics who kept catholic existence and presence alive in Korea. Although those days were mainly marked by persecution and oppression that were threatening their survival, their religious unity was also strengthened at the same time. In the course of avoiding persecution, the catholics built up Catholic Brotherhood Communities, religious life communities. They were inevitably kept in secret their religious faith and had economic problems because of continuous oppression and fear of being tracked down.

The measure to settle the religious and economic problems, was producing Onggi in catholic villages. By using various patterns on the surface of Onggi, they expressed crisscross designs which symbolized the Catholic God. Throughout creating various crisscross patterns on Onggi, they represented their strong creed secretly. With sacred objects such as Bibles and Crosses hided in Onggi, they did missionary works and set up a contacting system among the faithful. Profits they made from selling Onggi allowed the believers to earn their livelihoods. In sum, the Catholics produced Onggi as a means of propagation of Christianity and their living. Life in the Catholic Brotherhood Community also provided them

with the opportunity to practice ideas of equality-communal production and equal distribution. For them, the community was the ideal society where both economic and religious activities were secured.

It seems that in this paper there is much deficiency in the sense that there has not been sufficient researches on the Onggi-producing Catholic Brotherhood Communities with overlook. So, further studies and researches on this subject are anticipated to be conducted in the future.

Keywords: Onggi, Catholic Brotherhood Communities, Catholic persecution